

2026학년도 미술랭 모의고사 ★★-4회

국어 영역

홀수형

정답 및 해설

수능맛집국어연구소

정답 및 해설

공통

1	④	2	③	3	④	4	①	5	①
6	②	7	④	8	④	9	⑤	10	④
11	①	12	⑤	13	②	14	④	15	①
16	②	17	⑤	18	③	19	⑤	20	③
21	④	22	③	23	①	24	③	25	⑤
26	③	27	⑤	28	⑤	29	②	30	②
31	④	32	③	33	③	34	③		

화법과 작문

35	③	36	⑤	37	①	38	①	39	③
40	⑤	41	④	42	②	43	③	44	②
45	⑤								

언어와 매체

35	⑤	36	④	37	③	38	③	39	④
40	④	41	③	42	④	43	⑤	44	②
45	②								

공통

1. ④

3문단에서는 효과적인 상호 텍스트적 읽기를 위해, ‘읽는 과정에서 참조 텍스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련된 자료를 찾아 읽음으로써 자신의 배경지식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독서 이전에 모든 참조 텍스트에 대한 배경지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만 상호 텍스트적 읽기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독서 과정 중에 부족한 부분을 능동적으로 보충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텍스트에 암시된 ‘모든’ 참조 텍스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④의 진술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1문단에서 상호 텍스트성은 ‘텍스트의 의미가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생성된다는 관점’이라고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일치하는 내용이다.

② 2문단에서 독자가 ‘특정 텍스트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할 경우’, 텍스트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이해하거나 심지어 왜곡하여 수용하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일치하는 내용이다.

③ 1문단에서 상호 텍스트성은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능동적인 독서 활동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하였으며, 4문단에서도 이를 ‘주체적인 해석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치하는 내용이다.

⑤ 1문단에서 인용이나 암시 등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 ‘작품을 더 깊이 있고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으므로, 일치하는 내용이다.

2. ③

3문단에서는 효과적인 상호 텍스트적 읽기 방법으로 ‘참조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노력’과 함께, “참조 텍스트의 내용이나 주제가 현재 읽는 텍스트에서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를 비교하며 읽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은 이러한 방법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 진술이다.

① ‘표면적 의미에 집중’하는 것은 2문단에서 지적하는, 상호 텍스트적 맥락을 놓칠 수 있는 독서 방식에 해당하므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② 3문단에서는 참조 텍스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관련된 자료를 찾아’ 배경지식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기존에 알던 배경지식만을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④ 텍스트를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보고 그 자체의 형식적 완전성을 분석’하는 것은, 텍스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상호 텍스트적 읽기와는 거리가 먼 독서 방식이다.

⑤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자신의 해석 기준으로 삼는’ 것은 4문단에서 강조하는, 독자 스스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주체적인 해석 행위’와는 거리가 있는 수동적인 독서 태도이다.

3. ④

학생은 <보기>의 독서 활동에서 (가)의 ‘정절’이라는 주제가 (나)에서는 임을 향한 ‘사랑의 의지’라는 보편적 가치로 ‘변용’되었음을 파악했다. 이는 두 작품의 주제가 계승되면서도 그 성격이 변화했음을 이해한 것이다. 따라서 두 작품의 주제가 ‘본질적으로 동일함’을 이해했다는 ④의 평가는, 학생이 파악한 ‘변용’의 의미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것이다.

① 학생은 ‘독서 목적’에 따라 (나)가 (가)를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참조 텍스트인 (가)의 주제를 먼저 파악했다. 이는 효과적인 독서 순서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활동이다.

② 학생이 (나)의 ‘향단아, 그넛줄을 밀어라’라는 구절을 통해 (가) 「춘향전」의 인물과 상황을 파악한 것은, 3문단에서 언급한, 텍스트에 암시된 ‘참조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찾아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③ 학생이 두 작품의 주제를 비교하며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유교적 가치 → 보편적 가치)를 파악한 것은, 4문단에서 강조하는, 텍스트 간의 대화에 참여하여 자신만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주체적인 해석 행위’에 해당한다.

⑤ 2문단에 따르면 배경지식이 부족하면 텍스트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이 (가) 「춘향전」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었다면, (나) 「추천사」에 담긴 상호 텍스트적 맥락과 그 풍부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9] 26 수능완성 실전1 ‘실종 선고 제도’ 연계

4. ①

(가)는 실종 선고 제도의 현재적 내용과 기능을 설명하고 있으며,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나) 역시 이 제도가 지닌 철학적 의미를 분석할 뿐,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①은 두 글의 서술 방식과 내용을 모두 잘못 파악한 것이다.

② (가)는 실종 선고의 요건, 효과 등 구체적인 내용과 기능을, (나)는 이 제도를 통해 드러나는 존재와 법의 관계라는 법철학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③ (가)는 실종자와 남은 가족 간의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사회적 필요’를, (나)는 존재를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④ (가)는 현실의 불확실성을 정리하여 ‘법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측면을, (나)는 법이 존재를 규정하는 ‘결정 권한’을 갖는 측면을 부각한다.

⑤ (가)는 사회·법률적 관점에서, (나)는 법철학적 관점에서 ‘실종 선고’라는 동일한 제도를 조명하고 있다.

5. ①

㉠은 실종 신고 제도가 실제 사망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필요에 의해 사망 상태를 ‘구성’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이는 실종자의 실존이라는 자연적 사실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이나 채권자 등과의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 정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을 법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이 제도는 실종자 개인의 권리보다는 남은 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안정을 더 중시한다.

㉢ 법이 자연적 사실(실제 사망 여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하게’ 법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 이 제도는 실종자의 존재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거’하는 효과를 낳으므로, 그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법원은 가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만, 최종적인 사망 간주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6. ②

[A]에서 켈젠은 ‘법적 질서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할 때 개인을 특정한 ‘행위 능력의 단위’로 환원한다’고 보았다. 이는 권리란 지능이나 자율성 같은 자연적 속성에서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질서가 누구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를 인위적으로 규정하고 정의함으로써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인간과 유사한 자율성을 가진 인공지능에 대해 대부분의 법체계가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권리가 자율성 같은 내재적 속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적 질서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이다. 따라서 이 사실은 켈젠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 법 제정 이전에 보편적인 관습(권리 의식)이 존재했다는 것은, 법이 권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에 가깝다는 의미이다. 이는 법적 질서가 권리를 규정한다고 본 켈젠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된다.

㉢ 흡스는 법 없는 자연 상태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무권리 상태’로 보았다. 따라서 법 없는 상태에서 규칙이 힘에 의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은 흡스의 입장을 강화하는 사례이지만, 선지의 ‘자연 상태에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에서’라는 전제가 흡스의 입장과 맞지 않다.

㉣ 실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가 자연적 사실이 아닌 ‘사회적 승인’과 ‘절차적 인지’를 통해 구성된다는 [A]의 핵심 입장, 즉 흡스와 켈젠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근거이다.

㉤ 한 사회의 법이 그 사회의 고유한 도덕성과 무관하게 외부의 힘(정복자)에 의해 이식된 후 성공적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은, 법과 권리가 내재적 도덕성이 아닌 외부의 강제력이나 특정 질서에 의해 규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흡스와 켈젠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7. ④

(나)에서 법이 인간을 ‘법적 주체’로 승인하거나 배제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가)에서 실종 신고가 실종자의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거’하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내용이다. 그러나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실종 신고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진행된 상속이나 재혼 등의 법

적 효과는 원상 복귀가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실종 신고 취소를 통해 그의 법적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은, 지문의 내용을 잘못 파악한 부적절한 반응이다.

㉠ (가)는 실종 신고가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의 법적 행위를 위해, 즉 사회적 관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나)에서 법이 ‘제도의 안정성과 법률 행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기능을 한다는 설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 (나)는 실존하더라도 법적 승인이 없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가)에서 실종자가 살아 돌아와도,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된 재산을 되찾기 어려운 상황을 철학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 (가)는 일반 실종과 위험 상황 실종의 기간을 다르게 규정한다. 이는 (나)의 관점에서, 법이 자연적 사실(사망 가능성의 정도)을 고려하여 인간의 법적 지위를 다르게 ‘재정의’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가)와 (나)는 모두 실종 신고 제도가 생사 확인이 어려운 ‘현실의 불확실성’에 대해, 법이 ‘사망 간주’라는 인위적인 해결책을 통해 대처하는 방식임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8. ④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실종자가 생환하여 실종 신고가 취소되더라도, 그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관계는 쉽게 되돌릴 수 없으며, 특히 ‘재혼’의 경우 ‘원상 복귀가 어렵’다고 서술되어 있다. 민법의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실종 신고 취소 전에 이루어진 재혼은, 재혼 당사자들이 실종자의 생존 사실을 몰랐던 경우(선의) 유효한 것으로 본다. 즉, 갑과 을의 이전 혼인 관계가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을과 정의 새로운 혼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갑과 을의 혼인 관계가 자동으로 부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못하다.

㉠ (가)의 4문단과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실종 신고 제도는 생사 불명이라는 ‘현실의 불확실성’을 법적으로 정리하여, 상속이나 혼인 관계 등에서 ‘법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장치이다.

㉡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실종자가 생존하여 돌아오더라도 그는 자신의 실존을 입증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자’의 지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 (가)의 3문단에서 예시로 들고 있듯이,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실종자가 살아 돌아왔어도 해당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므로, 복잡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전쟁, 해난, 항공기 추락 등 위험 상황에 처한 경우’는 일반 실종(5년)과 달리 ‘1년만 경과해도’ 실종 신고가 가능하다. <보기>의 ‘선박 사고’는 이러한 위험 상황에 해당한다.

9. ⑤

㉡의 ‘취할’은 ‘일정한 조치나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의 ‘취하기로’ 역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조치’라는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이므로,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깝다.

㉠의 ‘취했다’는 일정한 태도를 가지거나 자세를 잡는다는 의미이다.

㉡의 ‘취했다’는 이익이나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진다는 의미이다.

㉢의 ‘취했다’는 술기운이 몸에 오른다는 의미이다.

④의 ‘취하기로’는 여러 개 가운데서 어떤 것을 골라 가진다는 의미이다.

[10-13] 26 수능특강 실전 2강 ‘큐비트’ 연계

10. ④

4문단에서는 RSA 암호의 안전성이 ‘현재의 고전 컴퓨터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제’에 기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1문단에서는 공개키 암호 방식이 ‘계산 능력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 위협이 현재가 아닌 미래의 기술 발전에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해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진술은, 위협의 시점을 잘못 파악한 부적절한 이해이다.

① 2문단에서 큐비트는 고전적 비트와 ‘달리’ 0과 1의 중첩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고전적 비트는 중첩이 불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공개키 암호 방식은 ‘계산 능력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 발전하면 보안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마지막 문단에서 양자 암호통신은 ‘암호의 안전성을 수학적 난해성이 아닌 물리 법칙에 기반’하며, ‘정보의 존재 방식을 구성하는 물리적 조건과 결합’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정보와 물리 법칙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긴밀하게 결합되었음을 의미한다.

⑤ 4문단과 5문단에서 기존 암호 체계는 암호의 ‘복잡도’를 높이는 방식인 반면, 양자 암호통신은 ‘측정이 곧 간섭’이라는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는, 즉 정보 은닉의 방식 자체를 바꾼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11. ①

4문단에서 ㉠은 양자역학의 근본 성질을 보안 구조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2문단과 3문단에 따르면, 큐비트는 ‘관측 시 그 상태가 확정되면서 원래의 중첩이 붕괴’되며, 이로 인해 제3자가 중간에서 큐비트를 ‘측정하여 정보를 탈취하려 한다면, 그 측정 행위 자체가 큐비트의 상태를 변경시켜 오류를 유발’하게 된다. 즉, 측정이라는 행위(해독 시도)가 정보에 물리적인 간섭을 일으켜 상태를 훼손하고, 이를 통해 도청 시도를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의 핵심 의미이다.

② 윗글은 제3자의 측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측정 행위로 인해 큐비트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역이용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③ 암호의 복잡도나 계산량을 통해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1문단과 4문단에서 설명하는 ‘공개키 암호 방식’이나 ‘고전 암호 체계’의 특징이다.

④ ㉠에서 말하는 간섭은 불규칙한 외부 잡음이 아니라, 제3자의 의도적인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를 의미한다.

⑤ 송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기저를 사용하는 것은 QKD의 구체적인 절차 중 하나일 뿐, ‘측정이 곧 간섭’이라는 근본적인 물리 원리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12. ⑤

윗글에 따르면 ‘기저’는 양자 암호통신(QKD)에서 큐비트의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이며, RSA 방식과는 관련이 없다. 4문단에서 RSA 방식의 안전성은 ‘소인수 분해’라는 수학적 난해성에

기반한다고 설명하므로, 만약 RSA 방식이 해킹당했다면 이는 고성능 컴퓨터가 소인수 분해 계산에 성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RSA 방식의 해킹 원인을 ‘기저’의 노출로 설명한 ⑤는 두 암호 방식의 원리를 혼동한 부적절한 추론이다.

① 1문단과 <보기>에 따르면, RSA 방식은 ‘계산량’에 안전성을 의존하므로 ‘고성능 컴퓨터에 의해 암호가 해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소가 QKD를 도입한 것은 이러한 RSA 방식의 한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② 3문단에 따르면 제3자가 큐비트를 측정하면 ‘큐비트의 상태를 변경시켜 오류를 유발’하게 되고, 송수신자는 ‘비교 절차에서 이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청 시도가 있다면 이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③ 3문단에 따르면, QKD를 통해 성공적으로 공유된 키는 제3자의 측정(도청)이 없었음이 확인된 키이다. 따라서 키의 내용 자체가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컴퓨터의 연산 능력과 무관하게 제3자는 그 키의 내용을 알 수 없다.

④ 윗글에서 QKD는 ‘암호 키’를 분배하는 기술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술로 안전하게 공유된 키를 이용하여, 실제 모의고사 데이터는 암호화한 뒤 기존의 일반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타당하다.

13. ②

㉠의 ‘구성하는’은 여러 부분이나 요소를 모아 일정한 전체를 짜서 이룬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양자 암호통신이 정보의 측정과 전달 방식을 새롭게 ‘짜서 만들어 내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 ‘형성하는’ 역시 어떤 모양이나 형세를 갖추어 이룬다는 의미로, 새로운 체계나 방식을 만들어 낸다는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깝다.

① ‘조립하는’은 여러 부품을 하나의 물건으로 만드는 기계적인 행위를 주로 의미하므로, 추상적인 ‘방식’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③ ‘배치하는’은 사람이나 물건 등을 일정한 순서나 간격에 따라 놓는다는 의미로, 새로운 전체를 만들어 내는 ‘구성’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④ ‘창작하는’은 주로 예술 작품 따위를 처음으로 만들어 낼 때 사용하는 말로, 기술적인 ‘방식’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⑤ ‘조직하는’은 흩어진 여러 요소를 모아 체계 있는 전체로 짜거나, 주로 사람을 모아 단체를 만드는 경우에 사용되므로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14-17] 26 수능특강 인문 6강 ‘놀이 철학’ 연계

14. ④

2문단에서 하위징아는 놀이가 ‘현실의 삶과는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진행’되며, 문명의 기원이 ‘경쟁이나 생존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놀이가 현실의 필요나 생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실용적인 행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놀이가 실용적인 행위라고 설명한 ④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2문단에서 하위징아는 ‘문명의 기원은 경쟁이나 생존이 아니라 ‘놀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4문단에서 피아제는 ‘규칙 있는 놀이’ 단계에서 아동이 타인의 관점과 규칙을 고려하게 되므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사회

적 관점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5문단에서 비고츠키는 놀이를 통해 아동이 '현재의 발달 수준을 초월하는 가능성을 실험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놀이를 현재 발달 수준을 넘어서는 계기로 본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⑤ 3문단과 5문단에서 피아제와 비고츠키는 각각 놀이를 인지 발달 구조와의 연결, 인지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두 학자 모두 놀이가 아동의 인지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15. ①

5문단에서 비고츠키는 아동이 놀이를 통해 '실제로는 아직 할 수 없는 행동이나 사고를 놀이라는 틀 안에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근접 발달 영역'을 자극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놀이 속에서 아동은 현재의 발달 수준을 초월하는 가능성을 실험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은 현재의 발달 수준을 넘어 도달 가능한 잠재적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② 새로운 경험을 기존의 인지 구조에 통합하여 내면화하는 것은 3문단에서 설명하는 피아제의 '동화' 개념에 해당한다.

③ 6문단에서 비고츠키는 놀이가 오히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역할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게 한다고 보았으므로, 충동에만 집중하는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

④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동의 현재 발달 수준이며, 근접 발달 영역은 이를 초월하는 잠재적 영역을 의미한다.

⑤ 놀이는 5문단에 따르면 '현실과는 다른 가상의 상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놀이 속 역할과 현실의 역할이 일치하는 지점으로 보기 어렵다.

16. ②

1문단에서 하위징아는 '언어, 법, 종교, 예술과 같은 문명 요소들이 놀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보기>의 축제는 풍년을 기원하는 '종교적' 성격과, 춤과 노래라는 '예술적' 성격,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사회적'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는 놀이가 단순한 유희를 넘어 다른 문명 요소들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복합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다.

① 풍년을 기원하는 목적이 있더라도, 축제 참여 자체는 '자발적'인 행위이므로 놀이의 본질적 속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축제는 2문단에 따르면 '현실의 삶과는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행위이므로, 일상적인 행위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풍년을 기원하는 목적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참여자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춤과 노래를 하며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놀이의 특징과 부합한다.

⑤ 2문단에 따르면 놀이는 '참여자들'이 함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행위이므로, 집단적 활동 역시 놀이의 본질과 어긋나지 않는다.

17. ⑤

5문단에 따르면, 비고츠키는 아동이 놀이를 통해 실제로는 아직 할 수 없는, 즉 자신의 현재 발달 수준을 '초월하는 가능성'을 실험하며 '근접 발달 영역'을 자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기>의 개념과 연결하면, 아동은 파이드아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놀이뿐만 아니라,

루두스의 규칙을 따르는 역할 놀이 속에서도 자신의 현재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 따라서 루두스와 달리 파이드아만이 '근접 발달 영역'을 자극한다고 한정된 ⑤는 비고츠키의 입장을 단편적으로 이해한 부적절한 감상이다.

① 3문단에 따르면 피아제의 '상징 놀이'는 사물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자유로운 놀이이므로 파이드아와, '규칙 있는 놀이'는 사회적 규칙을 따르는 놀이이므로 루두스와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② 6문단에 따르면 비고츠키의 '역할 놀이'는 역할에 따른 규칙을 내면화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과정이므로, 루두스의 성격을 통해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피아제와 비고츠키 모두 아동의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놀이가 더 복잡하고 구조화된 규칙을 따르게 된다고 보므로, 놀이가 루두스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띠게 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④ 3문단에 따르면 피아제에게 놀이는 주로 '동화' 중심의 활동이다. 따라서 파이드아의 성격이 강한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놀이에 몰두하는 것은, 외부 현실을 자신의 인지 틀에 맞춰 해석하는 '동화' 중심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18-23] 26 수능특강 현대시 '경사' 연계

18. ③

(가), (나), (다) 세 작품은 모두 구체적인 감각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화자(글쓴이)의 태도나 인식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가)는 '자갈이 빛났다'는 시각적 이미지나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과 같은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과거의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는 화자의 경이로운 태도를 보여준다. (나)는 강아지의 '분홍빛 발바닥'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나 '컹컹 짓'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생명체를 억압하고 길들이는 화자의 냉정한 태도와 그 결과에 대한 자조적 인식을 드러낸다. (다)는 '개구리들이 다투어 울어대니 그 소리가 매우 시끄러웠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계기로,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하고 자연의 이치를 성찰하는 글쓴이의 태도를 보여준다.

① (다)에서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와 같이 문답의 형식이 나타나지만, (가)와 (나)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공통점으로 보기 어렵다.

② (나)에서 폭력을 통해 '완벽한 개'를 만들었으나 결국 자유를 찾아 떠나는 모습에서 역설적인 상황을 읽을 수 있지만, 세 작품 모두에서 역설적 표현이 핵심적인 표현 방식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④ (나)는 강아지가 개로 성장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가)와 (다)는 특정 순간의 경험과 사색을 중심으로 하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

⑤ (가)의 '남색'이나 (나)의 '분홍빛' 등 색채어가 사용되지만, 세 작품 모두에서 색채의 대비가 주제를 강조하는 핵심적인 표현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19. ⑤

<보기>에 따르면, 이 시는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에 길들여지면서도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존재를 그리고 있으며, 개의 탈출은 '인간성의 회복을 갈망'하는 작가 의식의 상징적 표현이다. ⑤에서 '자유로워진 개의 모습'이 '인간성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전반부의 설명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 모습이 '현실의 익숙함을 갈망하는 현대인의 이중성'을 드러낸

다는 후반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에서 개는 ‘내 몽둥이가 닿지 않는 곳, 휘파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달려가 ‘다시 돌아 오지 않았다’. 이는 억압적이었던 현실(주인과의 관계, 사슬에 묶인 삶)과의 완전한 단절을 통해 온전한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이지, 그 현실의 익숙함을 갈망하는 이중적인 태도로 볼 수 없다.

① ㉡에서 강아지가 ‘방 모서리에 쭈글뜨리고 킁킁거’리는 것은, 주인의 권위에 길들여지기 이전의 나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본연의 모습이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된 ‘권력의 억압에 길들여지기 전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에서 생명력을 상징하는 자연물인 ‘라일락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순간과, 자유를 억압하는 인공물인 ‘사슬’에 익숙해지는 상황이 함께 제시되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자연물과 인공물의 역설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현실에 길들여지는 무기력한 존재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③ ㉣에서 개가 ‘화장품 외판여인의 바지를 물어뜯’는 돌발적인 행동은, 주인에게 길들여지고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내면에 여전히 억압에 저항하는 ‘야성’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개의 ‘이중성’에 해당한다.

④ ㉤에서 ‘지상은 완전히 결빙에서 벗어났다’는 자연의 변화는, 바로 뒤이어 화자가 개의 ‘사슬을 풀’고 개가 완전한 자유를 향해 달려가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자연물의 긍정적 변화와 개의 자유로운 행동을 조응시켜, 억압적인 상황을 벗어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20. ③

[A]에서 화자는 ‘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뒤 ‘가쁜한’ 신발을 신고 있다고 하여, 과거의 무겁고 힘들었던 젊은 시절의 부담감에서 벗어난 현재의 해방감을 드러낸다. [B]에서는 시야가 열리며 마주한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인 바다와, ‘하늘과 맞닿을 즈음’의 ‘수평’을 통해 광활하고 평온한 자연의 모습에 몰입하며 자연과의 합일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③은 각 부분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① [A]에서 화자는 바다로 ‘기울’어 가는 길 위에 있으며 아직 바다에 도달하지 않았다. 또한 [B]에서 ‘수평’은 광활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이지,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② [A]에서 ‘경사감’과 [C]의 ‘기우는 세계’는 화자가 ‘신비스럽’고 ‘설레는’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 대상이다. 이를 심리적 안정이 흔들리는 것으로 보는 것은 시의 긍정적 어조와 맞지 않으며, ‘가쁜한 신발’ 역시 해방감을 상징한다.

④ 시 전체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다. [B]의 ‘잔잔한 세계’는 현재 마주한 풍경이며, [C]의 ‘해가 저물고’ 있는 상황 역시 ‘설레는’ 감정과 연결되어 쓸쓸함과는 거리가 멀다.

⑤ [C]의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과 ‘오오 기우는 세계여’라는 영탄은 [B]에서 느꼈던 신비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 질 녘의 풍경 속에서 또 다른 경이로움과 감탄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1. ④

㉠‘유자나무’와 ㉡‘개구리’는 각각 순리대로 열매를 맺고 자신의 본성에 따라 소리를 내는 등, 인간의 관점에서 벗어난 자연 본연의 질서를 따르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러나 ㉢‘강아지’는 화자에 의해 ‘사슬로 목을 매’이고 ‘런치를 가’해지는 등, 본래의 속성을 억압당하고 주인의 목적에 맞게 길들여지는 존재이다. 따라서 ㉣는 자연 본연의 질서를 따르기보다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 그 질서가 왜곡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세 대상 모두 자연 본연의 질서를 따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는 ‘유자가 열리는’ ‘지순한’ 길의 일부로서 화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연 질서의 한 모습이다. ㉡는 화자가 ‘셰퍼드로 키우기로 마음 먹’고 사슬로 묶는 등, 길들이고 지배하려는 욕망의 대상이다.

② (나)의 서사는 화자가 ㉢를 길들이고 결국 떠나보내는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다)에서 글쓴이는 시끄럽게만 여겼던 ㉣의 울음소리를 계기로 인간 중심적 사고를 성찰하며 인식의 전환을 경험한다.

③ ㉠를 보며 화자는 순리를 깨닫고, ㉡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글쓴이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편협함을 깨닫는다. 따라서 두 대상 모두 깨달음을 주는 역할을 한다.

⑤ ㉠와 ㉡는 화자나 글쓴이의 사색과 성찰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된다. 반면, ㉢는 화자가 ‘굴기기도 하고 런치를 가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폭력성을 투영하여 길들이는 대상이다.

22. ③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자연을 통해 주관적, 미적 체험을 하거나(가), 윤리적, 철학적 성찰을 할 수 있다(다). ③에서 (다)의 글쓴이가 ‘개구리들’의 소리를 ‘자연의 소리’로 인식하며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보편적 이치를 성찰하는 것은 <보기>의 설명과 부합한다. 그러나 (가)의 화자가 ‘바다’를 ‘심오한, 잔잔한 세계’로 인식하는 것은, 과거의 부담에서 벗어나 마주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개인적이고 감각적인 체험이다. 여기서 인간 사회 전체에 적용될 보편적인 ‘규범’을 발견하려는 의도를 읽어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두 경우를 모두 ‘인간 사회의 규범을 자연에서 발견하려는 태도’로 묶어 설명하는 것은, 특히 (가)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화자는 바다로 향하는 길 위에서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경사감’을 ‘신비스럽다’고 표현하며, 자신의 감각적 체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보기>의 미적 체험을 중시하는 태도에 해당한다.

② (다)의 글쓴이는 시끄럽게만 여겼던 개구리 울음소리를 계기로, 인간의 소리와 자연의 소리에 대한 사색으로 나아가며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하는 윤리적 성찰을 보여준다.

④ (가)는 바다로 향하는 길 위에서 느끼는 개인의 감각과 해방감을, (다)는 개구리 소리에서 시작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 전반으로 확장되는 철학적 성찰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두 작품의 초점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가)에서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것은 과거의 번뇌에서 벗어났음을 상징하며, (다)에서 인간의 소리가 조화로운 소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각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파악한 감상이다.

23. ①

(가)에서 화자는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고 ‘바다로 기울’어진 길을 걷고 있다. ‘바다’는 화자가 과거의 부담을 벗고 나아가려는 목적지, 즉 지향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나)에서 두 번째로 언급되는 ‘봄’은 ‘지상은 완전히 결빙에서 벗어났다’는 묘사와 함께 제시되며, 화자가 개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주는 행위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즉, 억압된 상황에 변화를 유발하는 계기로 기능하고 있다.

② (가)의 ‘바다’는 ‘심오한, 잔잔한 세계’로 묘사되므로 시련의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③ (가)의 화자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바다’로 향하는 중이며, (나)의 화자는 ‘봄’을 배경으로 개를 길들이고 상처를 주는 주체이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지 않다.

④ (나)의 ‘봄’은 개가 자유를 찾는 계기가 되는 긍정적 시간으로,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현실로 보기 어렵다.

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타인과의 교감보다는 홀로 사색하거나 행동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그려지므로, 고독 해소의 계기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4. ③

양 소저는 두 부인의 말에도 원수가 이생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그리워했을 뿐이다. 그 후 시녀가 이생이 양 공의 묘에 가 슬퍼하고, 이생이 여사와 한림을 불러 정체를 고백한 후 시가의 사람들이 이생이 승상이 되었음을 인지하게 된다.

25. ⑤

[A]에서는 양 공이 본인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고 황제를 뵈지 못하고 죽음을 한탄하며 다시 뵈를 소망하고 있다. [B]는 이생의 활약상을 듣고 이생이 승상이 되었음을 모르는 처가에서 그와 같은 아들, 사위를 얻은 이들을 부러워하는 내용이다.

26. ③

이랑과 원수는 동일인이다. 이에 대해 부인은 동일인임에도 서로 다른 인물로 착각하여 다른 평가를 내리며, 앞선 성 씨의 발화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① 발화자가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감하지는 않고 있다.

② 기한이 지났다는 아버지의 물음에 동의하면서도, 황제에게 표를 올리는 것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원칙에 융통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양해를 구하는 대상은 황제이지, 상대방인 아버지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양 공의 배경에 대해 비하하기보다는 양 공의 죽음에 이생이 슬퍼함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 추측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서운함을 표했다기보다, 아는 사이임에도 과하게 예의를 차리는 것에 대한 의아함에서 비롯된 웃음을 짓고 있다.

27. ⑤

양 공이 이생의 자질을 알아보고 선택을 한 '지인지감'을 가진 인물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이생의 급제를 돕진 않았다. 오히려 양 공이 죽은 후, 처가에서 쫓겨난 이생이 공부하여 급제를 하고 전장에서 공을 세운 것이 출세의 계기이다.

① 『낙성비룡』에서 지인지감을 갖고 있는 인물은 양 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 처가의 인물들이 이생을 핍박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② 지인지감을 가지지 못한 인물들이 이생의 잠이 많은 성향을 보고 못한 행위라고 생각하여 핍박하며, 그로 인해 이생이 처가에서 쫓겨나 위기를 겪게 된다. 따라서 옳은 선지라고 볼 수 있다.

③ 두 부인이 승상이 된 이생의 행차를 보고 의문을 가지는 것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이생과의 괴리감이 있지만 외관이 닮아 동일 인물인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④ 여사 형제가 옛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승상이 될 이생의 자질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인지감이 없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승

상은 그들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므로 옳은 선지라고 볼 수 있다.

[28-31] 26 수능특강 현대소설 ‘차나 한 잔’ 연계

28. ⑤

‘그’가 이전에 문화부장을 찾아 갔던 사실을 떠올린 것은 맞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중첩은 역순행적 구성과 같이, 현재와 과거의 장면(시.공간)묘사가 동시에 동반되어야 한다. ㉠과 같은 서술은, 단순히 인물의 생각을 표시하는 기능을 할 뿐, 과거와 현재의 장면을 중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어떻게 처신할지 알 수 없었다’는 인식의 주체를 보여주는 표지인 ‘그’를 사용하여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② ‘그가 짐작하고 있던 사태 속에서 문화부장의 지금 얘기는 불필요한 게 아닌가’는 서술에서 문화부장의 반응이 예상과 판판임을 느낀 그의 심리를 맘이 송골송골 맺히고 얼굴이 빨개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③ 찻잔을 탁자 위에 잠시 놓았다가 드는 행위를 ‘예의상’이라고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인물의 행동이 가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인식 또는 행위 표지의 생략은 서술 주체를 모호하게 한다. 초점 대상인 ‘그’에 대한 표지를 생략함으로써, ㉠은 서술자와 인물을 겹쳐 보이게 하고 있다.

29. ②

윗글에서 문화부장은 주인공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어려운 말을 하기 위해 “차나 한 잔 하러 가실까요?”라고 제안한다. 다방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들의 대화는 “예의상 찻잔을 탁자 위에 잠시 놓았다가 다시 들어서 마시곤 했다”는 묘사처럼 형식적이고, 문화부장은 신문사의 어려운 사정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주인공 역시 김 선생과 술을 마시며 문화부장이 했던 말을 곱씹는다. 이처럼 작중에서 ‘차나 한 잔’은 인물들이 진정한 내면을 나누거나 깊은 공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아니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거나 형식적인 위로를 주고받는 최소한의 소통 시도를 상징한다.

① 문화부장이 주인공에게 ‘차나 한 잔’을 제안하는 것은 해고 통보라는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

③ 주인공과 김 선생은 술을 마시며 서로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차나 한 잔’이라는 말 자체는 주로 문화부장과의 형식적인 관계에서 등장하며, 온정어린 위로나 깊은 동질감 확인과는 거리가 있다.

④ 문화부장과의 만남은 오랫동안 계획된 것이 아니라 해고를 통보하기 위한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으며, 이 만남을 통해 깊은 유대 관계가 형성되지도 않는다.

⑤ 문화부장과 주인공 사이에는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주인공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갈등 해소나 용서, 화해와는 거리가 멀다.

30. ②

㉠ ‘다방’은 주인공이 문화부장으로부터 “독자들이 자꾸 투서를…” 넣는다는 말을 들으며 사실상 해고를 통보받는 공간이다. 이는 주인공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문화부장)에 의해 관계의 단절(연재 중단)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곳이다. ㉡ ‘군대’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정훈’으로 배

치된 것에 대해 남들은 부러워했지만, 정작 자신은 “총대를 쥐지 않았으니까 말이지요, 군대 기분이 안 났거든요.”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㉔는 각 공간의 의미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① ㉔ ‘다방’에서 주인공과 문화부장의 대화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이며, 주인공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는다. ㉕ ‘군대’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군대 기분’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한다.

③ ㉔ ‘다방’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만화가 재미없다는 평가와 함께 해고를 통보받으므로, 능력을 인정받는 공간이 아니다. ㉕ ‘군대’에서 조직의 부조리함에 맞섰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④ ㉔와 ㉕에서 주인공은 과거를 언급하며 자신의 불안한 처지를 드러내지만,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㉔에서는 해고를 통보받고, ㉕에서는 역할에 대한 불만족을 토로하고 있으므로, 경쟁에서의 승리나 성취감과는 거리가 멀다.

31. ④

<보기>는 현대인의 피상적인 관계와 소통의 단절을 설명하고 있다. ㉔에서 주인공이 해고당한 직후 선배인 ‘김 선생님’에게 연락하는 것은, 타인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타산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힘든 상황에서 정서적 위로와 유대를 나눌 수 있는 진솔한 관계를 찾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제기랄, 또 한잔할까?”라는 김 선생의 즉각적인 반응 역시 동료로서의 유대감과 공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를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처럼 피상적이고 타산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작품에 나타난 최소한의 인간적 소통과 연대의 가능성을 간과한 부적절한 감상이다.

① 문화부장은 해고 통보의 책임을 독자나 신문사 전체의 문제로 돌리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다. 이는 주인공의 감정을 헤아리는 진솔한 소통이 아닌,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대화에 해당한다.

② 주인공은 해고의 진짜 원인(재미가 없어서)을 알면서도 ‘배가 아팠다’고 둘러대고, 문화부장 역시 이를 깊이 파고들지 않고 피상적인 위로를 건넨다. 이는 서로의 내면을 건드리지 않는 단절된 대화의 양상을 보여준다.

③ 소통을 위한 제안인 ‘차나 한 잔’이 결국 해고라는 관계의 단절을 공식화하는 절차가 되어버린 상황은, 소통의 공간이 오히려 단절을 확인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잘 보여준다.

⑤ 문화부장과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문화부장이 ‘그’에게 ‘사람 웃기는 방법’의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무안을 준 것에 대해 ‘두꺼비 같은 눈알’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소통의 본질인 타인과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그’는 문화부장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34] 26 수능특강 고전시가 김진형 ‘북천가’ 연계

32. ③

(가)의 화자는 ‘이천 리 변경’이라는 유배지에서 ‘신선의 동굴’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을 마주하며, 기생들과의 풍류 속에서도 자신의 ‘단정한 몸’과 ‘귀양살이’라는 처지에 대한 상념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 역시 ‘고개 위’의 쌓인 눈을 보며 고향을 생각하고, ‘객지’에서 잠 못 이루며 자신의 억울한 처지와 나라에 대한 근심을 드러내는 등, 유배지라는 공간적 배경 속에서 자신의 처지와 관련된 상념을 서술하고 있다.

①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는 기생의 아름다움에 흔들리는 자신을 한탄하는 자조적 어조를, (나)는 자신의 억울함과 임금의 변심에 대한 원망의 어조를 드러낼 뿐,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② (가)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으나, 이는 세속적 가치에서 완전히 벗어난 탈속적 만족감이라기보다는 유배 생활 속에서의 여유에 가깝다. (나)의 화자는 자연을 보며 오히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④ (나)에서 화자는 ‘집 염려 나라 근심’을 통해 임금에 대한 걱정과 충정을 드러내지만, (가)의 화자는 기생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개인적인 감흥에 더 집중하고 있어, 변함없는 충정을 맹세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⑤ (나)의 화자는 유배지의 현실을 고통스러워하며 벗어나고 싶어 하므로, 이상적 공간으로의 도피를 통해 고통을 잊으려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 (가) 역시 이상적 공간으로의 도피보다는 현재의 유희를 즐기는 모습이 중심이다.

33. ③

㉔ ‘이천 리 변경’에서 (가)의 화자는 기생들과 어울려 풍류를 즐기고, ‘신선의 동굴’과 같은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며 유배 생활의 고통을 이겨내려 한다. 반면, ㉕ ‘객지’에서 (나)의 화자는 잠 못 이루고 자주 놀라 깨며, ‘집 염려 나라 근심’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등 자신의 처지를 직접적으로 한탄하고 있다. 따라서 ③은 두 공간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상반된 태도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① (가), (나) 모두 자신의 과오를 성찰하기보다는, 억울하게 유배 온 상황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② (나)는 임금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지만, (가)는 자연물에 감정을 투영하기보다는 풍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④ ㉔과 ㉕은 모두 화자가 처한 유배지라는 현실적 공간이며, 이상 세계나 부조리한 현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가)는 타인과의 교류가 나타나지만, (나)는 자연과의 교감보다는 내면의 고뇌가 중심이 된다.

34. ③

<보기>에 따르면 유배 가사는 작가의 상황 인식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장르이다. (가)에서 화자가 금강산의 봉우리를 ‘신선의 동굴’로 느끼는 것은, 유배지에서의 경험을 풍류로 즐기는 모습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서 화자는 임금의 ‘총애가 중했’음에도 ‘그 사이에 어이하여 이 뜻을 변하셨나’라고 직접적으로 물으며 임금의 변심 자체에 대한 의문과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임금을 단순히 간신들에게 좌우되는 나약한 존재로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넘어, 상황의 책임이 임금에게도 있음을 묻는 비판적 태도에 가깝다. 따라서 이를 임금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의 화자는 ‘본관이 보냈기에 기생을 데려갔’다고 하여, 복관 수령의 배려로 칠보산 유람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선계’를 보는 듯한 감흥을 느끼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자신의 유배 원인을 ‘간신이 틈을 보아 안팎으로 호응’하여 ‘흉인의 한 상소’를 올린 것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간신들에 대한 강한 분노와 울분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는 유배지에서 기생과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과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유배 가사의 고통 토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나)는 유배를 떠난 조부(송시열)를 따라나선 작가가, 유배지에서 고향을 생각하며 느끼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에서 ‘본 것이 큰 병’이라는 표현은 기생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된 화자의 호감을, (나)에서 화자가 ‘집 염려 나라 근심’을 하는 것은 유배자인 조부의 시점과 자신의 시점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법과 작문

35. ③

연설자는 연설 도입부에서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복도를 서성인 경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고개를 끄덕여 주시네요”)을 언급하며 문제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 후, ‘자료 1’의 설문 조사(통계 자료)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자료 2’의 라운지 사진(시각 자료)을 활용하여 ‘스터디 카페형 라운지 조성’이라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③은 연설의 전개 방식과 전략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 ① 연설자가 공약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는 있으나, 연설 중간에 앞선 내용을 명시적으로 요약하거나 정리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나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 ④ 다른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거나 그와의 차별점을 언급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연설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을 뿐,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지는 않았다.

36. ⑤

연설자는 ‘누리 문화의 날’을 앞으로 시행할 새로운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 3’은 이 공약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미래의 실행 계획 예시이지, ‘과거에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던 행사들의 실적’이 아니다. 이 자료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 과거의 실적을 통해 효과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 ① ‘자료 1’은 ‘휴게 공간 부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72%)를 막대그래프로 보여줌으로써, 연설자가 제기한 문제 상황이 다수 학생의 공감을 얻고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② ‘자료 2’는 ‘스터디 카페형 라운지’라는 첫 번째 공약이 실현되었을 때의 모습을 예상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청중이 공약의 긍정적 결과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하여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③ ‘자료 3’은 ‘누리 문화의 날’이라는 두 번째 공약에 대해 월별 주제 선정 방식과 행사 예시를 구체적인 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약이 막연한 구상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을 갖추고 있어 실현 가능하다는 인상을 준다.
- ④ ‘자료 2’는 첫 번째 공약(공간 복지)을, ‘자료 3’은 두 번째 공약(문화 복지)을 각각 시각적으로 구체화하여 보여준다. 이는 연설 내용의 설득력을 강화하는 적절한 자료 활용 방식이다.

37. ①

학생 1은 연설자가 제시한 두 가지 공약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하며, 공약이 실현되면 “학교생활이 더 즐거워질 것 같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공약이 가져올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명확히 드러내는 반응이므로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 ② 학생 2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예산’과 ‘학업 부담’ 문제를 근거로 우려를 표하고 있을 뿐, 공약의 내용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 ③ 학생 3은 연설자의 공약을 바탕으로 ‘체육 복지’라는 새로운 아이디어

어를 떠올려 추가적으로 탐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공약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대안 제시와는 거리가 멀다.

- ④ 학생 1은 공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학생 2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조금 걱정돼.”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으므로, 두 학생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학생 2와 학생 3 모두 연설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 학생 2는 실현 가능성을, 학생 3은 주제의 확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38. ①

(가)의 작성자는 자신을 ‘2학년 학생’이라고 밝히며, 자전거 통학 시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는 ‘학생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이라는 문제 해결을 정식으로 ‘건의’(요청)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따라서 ①은 이러한 작문 맥락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 ② 글의 수신인은 ‘학생회’이지 ‘학교측’이 아니며, 작성자가 전교생의 의견을 대표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③ 글의 내용은 시설 부족과 관리 부재의 문제이지, 학생들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 ④ 글의 주된 목적은 단순한 ‘공감대 형성’을 넘어,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공식적인 ‘건의’이다.
- ⑤ 작성자는 ‘학생회 임원’이 아닌 일반 학생의 자격으로 글을 쓰고 있다.

39. ③

평가 기준 ㉞는 문제 발생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지를 묻고 있다. (가)에서 제시한 문제 발생 원인은 ‘거치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부재’이다. 그러나 ③은 ‘노후화된 자전거로 인한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그 결과로 나타난 ‘상황’에 가깝다. 또한, (가)는 ‘노후화된 거치대’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을 뿐, ‘노후화된 자전거’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글의 내용을 잘못 파악하여 평가한 부적절한 설명이다.

- ①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에 관련된 학교 시설 개선 문제는 학생회가 다루기에 매우 적절한 건의 내용이다. 따라서 ㉞를 충족한다는 평가는 적절하다.
- ② 친구의 자전거 도난 사례는 건의의 배경이 된 실제 경험적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㉞를 충족한다는 평가로 적절하다.
- ④ 건의 내용을 ‘1. 가림막이 설치된 2단 자전거 거치대 확충’, ‘2. ‘자전거 등록제’ 도입 및 주기적인 관리’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누고 번호를 붙여 제시한 것은 ㉞의 체계적인 구성을 충족한다는 평가로 적절하다.
- ⑤ 무작정 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이다. 따라서 ㉞를 충족한다는 평가는 적절하다.

40. ⑤

(나)의 학생들은 (가)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에 대해 비판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학생 1’은 “문제 지적부터 개선 방안까지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인상 깊었어요.”라고, ‘학생 2’는 “제안된 ‘자전거 등록제’는 아주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가)의 방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근거 자료를 보강하고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① ‘학생 1’은 (가)가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었다고, ‘학생 2’는 제안된

해결책이 “효과적”이라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학생 1’은 (가)의 내용을 “우리 학생회가 꼭 다뤄야 할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공식 안건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고, 이후 대화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자료 수집, 역할 분담 등)으로 이어진다.

③ ‘학생 2’는 학교 측을 설득하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보강해야 설득력이 높아질 거예요.”라고 말하며, 그 방법으로 ‘설문 조사’와 ‘사진을 찍어 시각 자료로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④ ‘학생 3’은 (가)에서 제안된 ‘시설 개선’ 외에, “학생들이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로 제안하고 있다.

41. ④

[A]에서 학생 2는 학교 측을 설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강해야 한다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설문 조사’와 ‘사진 촬영’을 제안하고 있다. 이어서 학생 3은 건의 글을 써준 학생에 대한 예의와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게시판에 공식적인 답글을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④는 두 학생이 제안한 내용의 핵심을 각각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하다.

① 학생 2가 제안한 자료 수집은 학생 3이 제안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의 ‘시설 개선 건의’를 학교 측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② 학생 3은 학생 2의 제안에 대해 “좋은 계획이에요.”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소통 방안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고 있을 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③ 설문 조사를 제안하고 시각 자료(사진)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모두 학생 2이다.

⑤ 학생들은 건의문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보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42. ②

(나)의 대화에서 ‘학생 2’는 타 학교 사례를 참고하자고 제안하며 “우리 지역 내 다른 학교들”이라고 분명하게 조사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지에서는 이를 ‘타 지역 학교 사례’라고 기술하여, 제안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했다. 따라서 이는 학생 2의 제안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① (나)에서 ‘학생 2’는 건의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설문 조사가 필요해요.”, “사진을 찍어 시각 자료로 만드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안을 제안했다. <보기>의 [2단계]는 이 제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③ (나)에서 ‘학생 2’는 (가)의 해결 방안에 대해 “‘자전거 등록제’는 아주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3-2단계]에서 (가)의 해결 방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타당한 구성이다.

④ (나)에서 ‘학생 1’은 건의 글을 “우리 학생회가 꼭 다뤄야 할 안건”이라고 말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보기>의 [5단계]에서 건의 채택을 촉구하며 마무리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논의의 궁극적인 목표를 반영한 것이다.

⑤ (나)의 역할 분담 과정에서 ‘학생 1’은 ‘학생 3’에게 “게시판 답글 작성과 사진 촬영 계획을 맡아주는 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고, ‘학생 3’은 이에 동의했다. 따라서 <보기>의 [2단계]에 포함될 사진 자료는 ‘학생 3’이 촬영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43. ③

초고는 ESG 경영의 개념과 중요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나,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성장률을 비교’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생각은 초고에 반영되지 않았다.

① 1문단에서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 구조(Governance)의 약자이다.”라며 개념과 각 요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는 패션 기업의 사례, 3문단에서는 IT 기업의 사례, 4문단에서는 이사회 구성의 예를 들어 각 요소별 실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④ 본문은 ‘첫째, ‘환경(Environment)’’(2문단), ‘둘째, ‘사회(Social)’’(3문단), ‘셋째, ‘지배 구조(Governance)’’(4문단)로 구성되어, ESG의 세 가지 요소를 순서대로 설명하는 체계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기업은…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가치 소비를 실현할 수 있다.”라며 의미를 정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안목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44. ②

②는 ‘ESG 경영’이라는 핵심어를 포함하여 <조건 1>을 충족하고, ‘~을 아시나요?’라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조건 2>를 충족한다. 또한, 글의 도입부에서 언급된 ‘기업의 철학을 고려하는’ 소비 경향을 ‘착한 기업’이라는 표현으로 아우르며 <조건 3>을 고려한, 글 전체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함축하고 있어 가장 적절한 제목이다.

① ‘ESG 경영’이라는 핵심어는 포함했지만, 질문의 형식이 아니므로 <조건 2>를 충족하지 못한다.

③ 질문의 형식을 사용했지만, ‘ESG 경영’이라는 핵심어가 아닌 ‘가치 소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조건 1>을 충족하지 못한다.

④ ‘ESG 경영’이라는 핵심어가 없으며(<조건 1> 불충족), 질문의 형식도 아니므로(<조건 2> 불충족) 적절하지 않다.

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는 했으나, 이 글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ESG 경영’이라는 개념 자체를 소개하고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글의 내용과 목적을 더 잘 반영하는 ②가 더 적절한 제목이다.

45. ⑤

ㄷ의 ‘52%’ 수치는 ESG 경영 시 ‘정확한 기준과 평가 체계의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은 기업의 비율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통계이다. 초고 2문단에 제시된 패션 기업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통계 자료를 특정 기업 사례와 직접 연결하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냈다’는 식으로 서술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므로, 적절한 자료 활용 방안으로 볼 수 없다.

① ㄱ의 전문가는 소비자들이 기업의 ESG 수준을 따져보고 ‘가치 소비’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초고 마지막 문단의 ‘소비자는 자신의 신념에 맞는 가치 소비를 실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므로, 주장을 강화하는 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② ㄴ은 ESG 경영을 실천한 기업의 평균 매출 성장률이 더 높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한다. 이는 초고 마지막 문단의 ‘기업은 ESG 경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절하다.

③ ㄷ의 68% 통계 자료는 대다수의 기업이 ESG 경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1문단에서 ESG 경영을 ‘시대적 흐름’이라고 설명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하기에 적절하다.

④ ㄷ에서 많은 기업들이 ESG를 중요하게 여기지만(68%), 평가 체계가 부족하다는 어려움(52%)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ㄱ의 전문가가 언급한 것처럼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기업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논리적 연결이 가능하다. 이는 두 자료를 통합하여 새로운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심화된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다.

언어와 매체

35. ⑤

3문단에 따르면 중세 국어는 파생적 방법만 존재하여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의 형태적 구분이 없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러한 구분은 “문맥적 의미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문맥을 통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므로, 의미 파악이 불가능했겠군이라는 진술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① 1문단에서 “중세 국어에서 사동과 피동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주로 용언 어간에 특정 접사를 결합하는 파생적 방법으로 실현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보이다’의 예를 들며, 사동과 피동을 구분하기 위해 “문장 내에서 목적어의 유무 등 문장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4문단에서 “-오/우-, -구- 등”의 사동 접사들이 “현대 국어에서는 그 흔적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라진’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이해로 볼 수 있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접사 ‘-기-’는 사동과 피동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었고, 4문단에 따르면 접사 ‘-추-’는 “대부분 사동의 의미만을 나타냈다.” 따라서 적절한 이해이다.

36. ④

(나)와 (다)는 모두 사동 표현이지만, 사동 접사가 결합하기 이전 동사의 성격이 다르다. (다)의 ‘녹이시니’의 기본형인 ‘녹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이다. 여기에 사동 접사 ‘-이-’가 결합하면서 ‘눈을’이라는 새로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가 되었다. 하지만 (나)의 ‘듣오다’의 기본형인 ‘듣다’는 원래부터 ‘말을 듣다’와 같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사동문이 되면서 새로운 주어(성이)가 등장했을 뿐, 목적어(그 말을)가 새롭게 요구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두 새로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표현을 만든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는 주어 ‘큰 고기’가 부사어 ‘작은 고기에게’ 먹힘을 당하는 상황을 나타내므로, ‘-히-’는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사로 쓰였다.

② (나)는 주어 ‘성이’가 ‘아비’로 하여금 ‘그 말을(그 말을)’ 듣도록 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윗글에서 언급된 사동 접사 ‘-오-’가 사용된 적절한 예이다.

③ (다)는 주어 ‘봄바람이’가 목적어 ‘눈을’ ‘녹게 하는’ 상황이므로, 접사 ‘-이-’는 사동의 의미를 더하는 기능으로 쓰였다.

⑤ (나)는 ‘성이 아비에게 말을 듣도록 상황을 만드는’ 간접 사동으로, (다)는 ‘봄바람이 눈에 직접 작용하여 녹게 만드는’ 직접 사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윗글에서 중세 국어의 직접/간접 사동 구분이 문맥에 의존한다고 하였으므로, 예문의 문맥에 따른 이러한 의미 파악은 적절하다.

37. ③

③번 문장은 <보기>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1. 서술어의 자릿수: 주절의 서술어 ‘삼았다’는 ‘누가(주어)’, ‘무엇을(목적어)’, ‘무엇으로(부사어)’를 모두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나는, 그를, 친구로)

2. 둘 이상의 안긴절: 이 문장은 주절 속에 관형절 ‘모두가 그를 떠났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이 안겨 있고, 이 관형절 속에 다시 부사절 ‘모두가 그를 떠났기 때문에’가 안겨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안긴절이 두 개 쓰였다.

3. 관계 관형절: 관형절 ‘...친구가 없는’은 선행사 ‘그’를 수식하며, 관형절 내에서 주어 ‘그가’가 생략되었으므로 관계 관형절이다.

① 서술어 ‘주었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고, 관계 관형절(내가 사려고 했던)도 쓰였다. 하지만 안긴절이 관형절 하나뿐이므로, <조건 2>를 충족하지 못한다.

② 관계 관형절(...드러난)과 명사절(그가 범인임)이라는 두 개의 안긴절이 쓰였다. 하지만 주절의 서술어 ‘알고 있다’는 ‘누가(주어)’, ‘무엇을(목적어)’을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조건 1>을 충족하지 못한다.

④ 서술어 ‘밝혔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고, 명사절(...거짓임을)과 동격 관형절(...범인이라는)이라는 두 개의 안긴절이 쓰였다. 하지만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는 관계 관형절이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조건 3>을 충족하지 못한다.

⑤ 관계 관형절(...생각했던)과 명사절(...불가능하다고)이라는 두 개의 안긴절이 쓰였다. 하지만 주절의 서술어 ‘지켰다’는 ‘누가(주어)’, ‘무엇을(목적어)’을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조건 1>을 충족하지 못한다.

38. ③

‘갈다’의 ①은 예문 ‘칼을 갈았다’에서 보듯 ‘무엇을 갈다’의 형태로 주어 외에 목적어 ‘칼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갈다’의 ① 역시 예문 ‘발을 갈고 있었다’에서 보듯 ‘무엇을 갈다’의 형태로 주어 외에 목적어 ‘발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즉, 두 단어 모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따라서 ‘갈다’의 ①과 달리 ‘갈다’의 ①이 목적어를 요구한다고 설명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사전에 표제어가 ‘갈다’, ‘갈다’, ‘갈다’와 같이 위첨자를 붙여 별도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이 단어들이 소리만 같고 뜻은 다른 별개의 단어, 즉 동음이의어 관계임을 보여준다.

② ‘갈다’의 기본형 발음은 장음([갈:다])이지만, 예문에서 보듯 자음 어미 앞에서는 장음([갈고])으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단음([가라따])으로 실현되어 모음의 길이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④ ‘오래된 타이어를 갈아야겠다.’의 ‘갈다’는 ‘사용하던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는 의미이므로, ‘갈다’의 ①에 해당하는 용례가 맞다.

⑤ ‘얼음을 갈다’는 ‘맷돌 따위로 으깨어’ ‘더 작은 조각으로 만든다’는 의미의 확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갈다’의 ②에 해당하는 용례로 볼 수 있다.

39. ④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접미사가 결합하여 어근의 품사가 바뀌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5개의 접미 파생어 중 품사가 바뀌지 않은 사례를 찾아야 한다.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정도를 더하는 접미사 ‘-다랗다’가 결합하여 새로운 형용사 ‘높다랗다’가 되었다. 어근과 파생어의 품사가 모두 형용사로 동일하므로, 밑줄 친 사례

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안녕히: 명사 ‘안녕(安寧)’에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부사 ‘안녕히’가 되었다. (품사 변경: 명사 → 부사)
- ② 멋쩍다: 명사 ‘멋’에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쩍다’가 결합하여 형용사 ‘멋쩍다’가 되었다. (품사 변경: 명사 → 형용사)
- ③ 출렁이다: 부사(의태어) ‘출렁’에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이다’가 결합하여 동사 ‘출렁이다’가 되었다. (품사 변경: 부사 → 동사)
- ⑤ 평화롭다: 명사 ‘평화(平和)’에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롭다’가 결합하여 형용사 ‘평화롭다’가 되었다. (품사 변경: 명사 → 형용사)

40. ④

(가)는 온라인 메시지를 활용한 대화로, 참여자들이 회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별도의 ‘공유 문서’를 함께 작성하고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이는 대화에 드러나지 않은 매체 활용 방식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① ‘정연’이 늦게 온 ‘미나’를 위해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보여주자고 제안하고, ‘사나’가 이전 대화 내용을 인용하여 공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② ‘미나’가 포스터에 들어갈 내용으로 “‘탄소중립 정의’랑 ‘정부 지원 정책’ 같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웹에서” 찾자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③ ‘미나’가 아이콘 스타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참고할 이미지로 “[링크-이미지 파일.jpg]”를 대화방에 공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⑤ 대화 참여자들은 포스터의 개념, 디자인, 내용, 글꼴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지효’와 ‘사나’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41. ③

(나) 포스터의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 부분에서는 ‘장바구니, 텀블러 사용’,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등 각 실천 항목의 핵심 내용을 상징하는 아이콘과, 그것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시각 정보와 언어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은 독자가 내용을 빠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정보 전달 전략이다.

- ① (나) 포스터에는 통계 자료가 인용되지 않았다.
- ② (나)는 순차적인 서사를 지닌 만화 형식이 아니라, 정보를 나열하는 아이콘과 텍스트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④ (나)에는 QR 코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으며, 텍스트로 된 하이퍼링크 주소가 제시되어 있다.
- ⑤ (나)에는 ‘정부 사이트 링크’가 첨부되어 있지만, 이 링크의 기능은 ‘정부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신청 방법, 혜택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보는 링크가 아니다.

42. ④

㉞은 앞선 참여자인 ‘정연’이 언급한 ‘폰트’, ‘제목 위치’, ‘아이콘 배치’ 등 디자인 구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받아, ‘아이콘 스타일’과 ‘설명 형식’이라는 새로운 세부 사항을 제안하는 발화이다. 이는 논의를 이전 화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화제(디자인 구성)를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① ㉞의 ‘일단’은 포스터 컨셉이라는 본 논의에 앞서, 모든 친구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며 대화의 절차를 조정하고 있다.
- ② ㉞의 ‘미안’은 대화 참여가 늦어진 것에 대한 사과를 통해, 대화에 원

만하게 참여하고 다른 참여자들과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 ③ ㉞의 ‘좋아’는 ‘미나’의 정보 수집 제안에 동의한 후, “내가 정의랑 실천 방법 정리할게.”라며 곧바로 자신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아이디어를 탐색하던 논의가 구체적인 역할 분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다.
- ⑤ ㉞의 ‘그러면’은 QR 코드 제작이 어렵다는 ‘정연’의 의견을 수용한 후(“그런가?”), QR 코드를 제외하고 ‘정부 지원 정책 링크만 추가’하자는 수정된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43. ⑤

(가)의 대화에서 ‘사나’가 QR 코드 추가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바로 뒤에 ‘정연’이 “제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아? 일단 QR 코드 제작은 보류하자.”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사나’ 역시 “그런가? 그러면 일단 정부 지원 정책 링크만 추가해놓자.”라고 동의했다. 즉, QR 코드 추가는 논의 과정에서 ‘보류’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나)에 추가하는 것은 (가)의 최종적인 논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가)는 교내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나)의 일반적인 실천 방법에 ‘우리 학교’의 구체적인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논의의 목적과 맥락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안이다.
- ② (가)에서 ‘미나’는 신뢰할 만한 정보, 특히 ‘정부 지원 정책’을 웹에서 찾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나)에 제시된 정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이러한 제안의 취지를 잘 살린 적절한 보완이다.
- ③ (가)에서 ‘사나’는 포스터의 전체적인 색감을 “초록·파랑 계열로 통일”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바탕으로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는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는 것은 논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적절한 방안이다.
- ④ (가)의 첫 부분에서 ‘지효’는 “이번 달이 ‘탄소중립 실천의 달’”이라고 언급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이 정보를 (나)에 추가하여 캠페인의 시의성을 강조하는 것은 독자의 즉각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므로 적절하다.

44. ②

(가)의 앱 화면은 상단부에서 ‘운영 시간’, ‘이용 제한’ 등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을 안내하고 있으며, 하단부의 ‘OO님의 이용 현황’에서는 특정 이용자의 신청 좌석, 시간 등 개인화된 실시간 정보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 정보와 개인화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 ① ‘이용시간 연장’ 안내에 따르면 연장은 ‘1회 2시간 이내’만 가능하므로, 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더보기’를 클릭했을 때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 (가) 화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나)의 ‘강호’의 반응을 통해 좌석 배치도 이미지가 제공되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 ④ ‘이용 제한’ 안내에 따르면 ‘연장 후 퇴실하지 않은 경우도 무단 퇴실로 간주’되며, ‘무단 퇴실 2회 시 3일간 신청 불가’라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 ⑤ ‘OO님의 이용 현황’에 따르면 현재 이용자는 ‘17:00~19:00’까지 총 2시간을 이용 중이다. ‘1일 최대 이용시간’이 4시간이므로, 아직 추가 이용 및 연장이 가능하다.

45. ②

(나)에서 '정우'는 “무단 퇴실 2회만으로 3일 제한은 좀 과한 듯해요.”라며 “3회까지 기준을 늘려주면 좋겠어요.”라고 제안했다. 이는 페널티가 적용되는 기준 '횟수'를 늘려달라는 의견이지, 제한 '일수'를 줄여달라는 의견이 아니다. <보기>의 2번 결정 사항은 역시 제한 일수는 '3일'로 유지한 채 기준 횟수만 '3회'로 변경했다. 따라서 이용 제한 '일수'를 줄여달라는 의견을 반영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나)에서 '정민'은 연장 신청 시간이 “종료 10분 전부터만 가능”해 불편하다고 했다. <보기>의 1번 결정 사항은 이 시간을 '30분 전부터'로 확대하여 해당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③ (나)에서 '강호'는 “앱 좌석 배치도가 이미지로 나오면 좋겠”고 “상세 정보가 부족”하다고 제안했다. <보기>의 3번 결정 사항은 '좌석 배치도 이미지'와 '상세 정보 팝업' 기능을 추가하여 이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④ (나)에서 '병헌'은 '자동 퇴실 처리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기>의 5번 결정 사항에 따라 기준은 유지되었지만, 4번 결정 사항을 통해 '퇴실 알림 기능'이라는 보완책을 마련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나)는 이용자들의 의견이 제시된 공간이며, <보기>의 6번 결정 사항은 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시 이용자들에게 공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앱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